

# 푸른 하늘과 뒤바뀐 하얀색 물건들

경남 관동초등학교

5학년 김민주

어느 날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면 푸른색 하늘이 아닌 회색하늘과 산성비를 퍼붓는 구름을 그릴 수 있겠다’ 라고 말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후, 나는 온난화 문제에서부터 투발루 섬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환경보호단체나 그에 관한 책, 동아리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를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시키게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그 다짐은 그 날, 그 때의 다짐일 뿐 하루가 지나면 어김없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며 짧은 거리를 다닐 때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줘야 하는 바람이다. 우리 학교의 친구들은 ‘나뽀’ 수준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뛰어 놀지 못해 아쉬워한다. 하지만 그 미세먼지가 자기가 마신 음료수를 담은 병을 분리수거 하지 않은 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친구들은 잘 모른다. 분리수거 되지 않은 병은 재활용이 되지 못해 땅에 묻히거나 쓰레기산에 묻히거나 태워져 버린다. 태울 때 나오는 해로운 물질들이 대기 오염을 이루어 미세먼지 심각 수준이 되는 것이다. 꼭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일이 아니다. 육식주의자들의 과도한 육류 섭취, 사람들의 불필요한 차 사용 등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말이 곧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안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주말에 폭염을 피해 도서관에 온 적이 있었다. 그 때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다룬 책을 읽어보았다. 그 책에는 지구가 해로운 물질 때문에 아파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는 능력인 “자생능력”을 지구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인류는 지구에게 그 어느 정도의 시간도 주지 못한다. 여기서 잠깐!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그 어느

정도의 시간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지 않는다”가 더 정확하다. 결국 우리는 지구가 자생능력을 발휘하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고, 읽고,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을 하면 된다.